

The Effects of Youth Facility Use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Activities on Awareness of Youth Policie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Park, Dong Jin

Research Fellow, 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Background: This study began with th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youth facility use experienc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in order to enhance youth's awareness of policies in youth policy participation, and to seek countermeasures for them.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using youth activity facilities and awareness of youth activity policies.

Methodology: SPSS 27.0 and SPSS PROCESS macro 4.1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SPSS PROCESS macro 4.1 for 9,041 adolescents ranging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18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Survey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inding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using youth activity facilities had an effect on the awareness of youth activity policies. Second,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activiti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using youth activity facilities and awareness of youth activity polici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using youth activity facilities and participation activitie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using youth activity facilities and awareness of youth activity policie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activities.

Conclusion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youth activit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expansion of youth activity facility use experienc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active interest and support from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for youth activities.

Keywords: Youth Facility Use Experience, Awareness of Youth Policies, Participation Activities,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NRF-2017S1A5B5A02025952).

Corresponding Author: Park, Dong Jin

Research Fellow, Gyeonggi Welfare Foundation, 1150, Gyeongsudaero, Suwo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3-2978-2133>

Email: wookana@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 2022 **Revised:** December. 27. 2022 **Accepted:** December. 27. 2022 **Publication:** December. 31. 2022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동진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배경: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참여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시설이용경험, 참여활동,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서 참여활동의 매개효과와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이르는 청소년 9,041명의 데이터를 SPSS 27.0과 SPSS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은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를 참여활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는 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참여활동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 지역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참여활동,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2025952).

교신저자: 박동진

소속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ORCID: <http://orcid.org/0000-0003-2978-2133>

Email: wookana@hanmail.net

투고일: 2022. 12. 1 **심사일:** 2022. 12. 27 **게재확정일:** 2022. 12. 27 **발행일:** 2022. 12. 31

I. 서 론

청소년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혹은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1]. 또한 「청소년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정치·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외·내부환경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내재화된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은 통해 정치·사회적인 역량을 함양해왔으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정책참여기회와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그 활동의 범위와 수준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이 자질 있고, 독립적이며 책임감있는 시민으로 발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크게 기능해왔다[2].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국가 차원에서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청소년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단순히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인지도는 정책이해도 혹은 정책리터러시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의미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정책인지도는 정책과정 및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를 뜻하며, 넓은 의미의 정책인지도는 정책과정 및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정책이 자신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3]. 이러한 정책인지도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숙의 및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4]. 시민들은 정책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쉽고 수월해진다[5].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가 민주주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책이해도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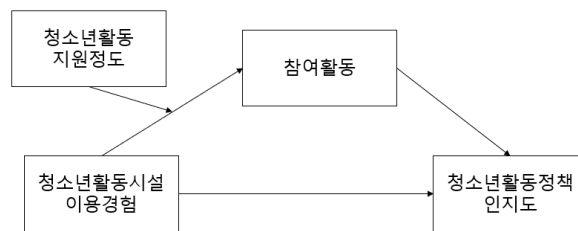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소년정책들 중 청소년 활동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효과를 거두어왔다[6]. 이러한 효과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정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부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치되고, 청소년활동전달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보다 체계를 갖추면서 발전되어왔다[7]. 특히 정부에서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정책 결정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범위와 수준이 확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사회에서의 적절한 대우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8].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청소년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근거로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 유의미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할 수 있다.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10]. 다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 청소년의 명목적인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청소년활동정책이 기획되고 조정되고, 실현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요구된다[11].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마련된 상황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참여활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보다 많이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12,13].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14], 김소정과 류정희[15], 손수경[16]에서와 같이 청소년활동 빈도가 많을 경우에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등이 향상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를 비롯하여 교사 등 청소년과 가까운 사람들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을 할수록 청소년활동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17,18], 고려하면, 청소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주위사람들의 긍정적인 지원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청소년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손수경[16]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들의 지지는 모든 학교급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볼 때,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면서 청소년활동을 할 경우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도 하며, 보다 발전되고 확장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인지도, 참여활동,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관계는 유의미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참여활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은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를 참여활동이 매개하는가?, 셋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조절하는가?, 넷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는 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가?이다. 또한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한 9,041명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여러 활동들을 체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20].

전국의 총 9,041명이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4,693명(51.9%), 여자 4,348명(48.1%), 학교급은 초등학교 2,828명(31.3%), 중학교 2,642명(29.2%), 고등학교 3,571명(39.5%), 지역규모는 대도시 3,696명(40.9%), 중소도시 4,358명(48.2%), 읍면지역 987명(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변인들을 측정한 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 시 측정한 문항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가.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공연 및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 수목림, 자연휴양림”, “주민센터, 문화센터”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이용한 적 없음, 2=이용한 적 있음(1~2번), 3=이용한 적 있음(3~5번), 4=이용한 적 있음(6~9번), 5=이용한 적 있음(10번 이상))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763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정책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에 대해 3점 리커트 척도(“1=전혀 모른다, 2=들어본 적이 있다, 3=잘 알고 있

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898로 나타났다.

다. 참여활동

참여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참여활동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참여한 적 없음, 2=참여한 적 있음(1~2번), 3=참여한 적 있음(3~4번), 4=참여한 적 있음(5번 이상))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활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608로 나타났다.

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 혹은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청소년 지도자(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전문가)”의 지원정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지원이 없다, 2=지원이 없는 편이다, 3=보통이다, 4=지원이 있는 편이다, 5=매우 지원이 많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들로부터의 지원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71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27.0과 Hayes[21]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SPSS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7.0을 활용하여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절차[22]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인지도의 관계를 참여활동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모델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참여활동을 매개하여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영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기존에 많이 활용하였던 Sobel test와 달리 부트스트래핑은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 검증력이 상대적으로 높다[22].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점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며,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므로 정규분포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3]. 또한 주요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모두 상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 정책인지도	참여활동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평균	16.08	11.67	4.80	12.27	
표준편차	5.23	3.41	1.54	3.35	
왜도	통계치	1.55	1.43	2.65	-.30
	표준오차	.03	.03	.03	.03
첨도	통계치	3.89	1.74	8.28	.31
	표준오차	.05	.05	.06	.05

〈표 III-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 정책인지도	참여활동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1			
청소년활동 정책인지도	.388***	1		
참여활동	.399***	.299***	1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244***	.221***	.195***	1

***p<.001

2.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서 참여활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서 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은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2512, p<.001$). 둘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은 참여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1147, p<.001$). 셋째, 참여활동은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177, p<.001$). 마지막으로 참여활동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가운데,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그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2033, p<.001$).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참여활동을 거쳐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 계수가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0387과 상한값 .0575으로 신뢰구간 안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참여활동을 고려한 상태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여활동은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3〉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서 참여활동의 매개효과

변수	결과변인(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B	S.E	t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c	.2512	.0074	33.8639***
F=1146.7665, p<.001, R-Squared=.1518				
변수	결과변인(참여활동)			
	B	S.E	t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a	.1147	.0033	34.9052***
F=1218.3719, p<.001, R-Squared=.1597				
변수	결과변인(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B	S.E	t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c'	.2033	.0080	25.5597***
참여활동	b	.4177	.0277	15.0774***
F=707.2917, p<.001, R-Squared=.1808				
변수	간접효과의 유효성 검증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CLI
참여활동	.0479	.0048	.0387	.0575

***p<.001

3.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에서 이들 관계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변수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조절변수인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참여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에 따라 이들 관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24.0273$, $p<.001$).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효과를 기 위해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조절변수의 평균값 $\pm 1SD$)에서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으며[23], 그 결과 모든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에 따라 모든 조건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표 III-4〉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효과

변수	결과변인(참여활동)				
	B	S.E	t	R-Squared	F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a)	.1015	.0336	28.2404***		
참여활동(b)	.0530	.0055	9.5497***	.1711	424.0273***
a×b	.0056	.0009	6.0153***		

*** $p<.001$

〈표 III-5〉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효성 검증

변수	조절효과	S.E	t	LLCI(b)	ULCI(b)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1SD	.0827	.0053	15.5265***	.0723	.0931
	Mean	.1015	.0036	28.2404***	.0944	.1085
	+1SD	.1203	.0041	29.1943***	.1122	.1283

*** $p<.001$

한편, 조절효과에 의해 변화되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Mean $\pm 1SD$ 일 경우에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값을 살펴보았다.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많으면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참여활동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긍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과 참여활동의 평균값과 $\pm 1SD$ 수준에서 모두 신뢰구간 안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참여활동, 청소년활동정책인지도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참여활동을 거쳐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는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58, t=6.1657, p<.001$). 또한 참여활동은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227, t=15.1104, p<.001$). 이로써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은 참여활동을 거쳐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를 청소년활동

〈표 III-6〉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참여활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수	결과변인(참여활동)				
	B	S.E	t	LLCI(b)	ULCI(b)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a1)	.1012	.0036	28.0865***	.0941	.1082
청소년활동 지원정도(a2)	.0534	.0056	9.6056***	.0425	.0643
성취동기×청소년활동지원정도(a3)	.0058	.0009	6.1657***	.0039	.0076
F=423.2910, p<.001, R-Squared=.1718					
변수	결과변인(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B	S.E	t	LLCI(b)	ULCI(b)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c')	.2025	.0081	24.9172***	.1865	.2184
참여활동(b1)	.4227	.0280	15.1104***	.3679	.4776
F=678.6373, p<.001, R-Squared=.1815					
변수	간접효과의 유효성 검증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0346	.0040	.0271	.0430	
Mean	.0428	.0043	.0347	.0515	
+1SD	.0509	.0056	.0403	.0623	

***p<.001

등 지원정도가 조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갖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Mean \pm 1SD 수준에서 모두 조건부 값에 따라 간접효과 크기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24]. 분석결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값은 .00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ean \pm 1SD 수준에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내에 모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간접효과는,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참여활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은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을 많이 이용할수록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활동시설을 많이 이용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가 높은 것이다. 이 결과는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14], 김소정과 류정희[15], 손수경[16]에서와 같이 청소년활동 빈도가 많을 경우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등이 향상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청소년활동정책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보다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를 참여활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참여기구 등의 참여활동이 많아지며, 이는 다시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많아질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인지도가 보다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영인[25]에 의하면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참여의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경험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이해정도인 정책인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이보다는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이용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청소년참여정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소년참여기구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참여활동의 관계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참여활동이 많아지나, 청소년활동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참여활동을 하는 정도가 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므로[13,14],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을 높여 청소년참여기구 등으로의 참여활동으로 연결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역량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부모, 교사 등에게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 제고를 위한 안내, 홍보를 보다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사 등과 같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전문성으로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면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보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는 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 및 참여활동 확대를 비롯하여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그 당사자로서 중심이 되고, 개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온 효과에 비해 청소년활동현장이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

해 청소년활동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다 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과의 관계, 참여활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보다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실제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려가 필요하다.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위의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조사데이터가 개인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면, 보다 풍성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손의숙 (2007). 청소년 정책참여 수준과 세대 간 차이 비교연구, 미래청소년학회, 4(2), 37-55).
(Shon. E. S. (2006). A Study on Youth's Participation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Youth Polic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4(2), 37-55).
2. Winter, Micha de (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dcliffe Medical Press.
3.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73-104.
(Jung. K. H (2008).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licy Literacy Function: A Focus on Civic Activities, Public Affairs Review, 46(4), 73-104)
4. 임도빈, 정현정, 강은영 (2012).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1-30. (Im. D. B. Jung. H. J. Kang E, Y, (2012). The Effects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by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19(2), 1-29.)
5. 박서연, 정희정 (2019).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8(1), 195-221.(Park. S. Y. Jung. H.J. (2019)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Policy Literacy on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The Case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8(1), 195-222)
6. 박경미, 박한솔, 최연정 (2020).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95-121.(Park. K. M., Park. H. S. & Choi. Y. J. (2020). Typolog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youth activities,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6(4), 95-121.)
7.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 (2015). 한국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의 특성, 청소년학연구, 22(4), 133-157. (Moon. S. H. Park. S. K., Yoon. D. Y. & Jung. J. Y. (2015).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Youth Activity Actual Condition and Needs Assessment, Journal of Youth Studies, 22(4), 133-157)
8. 이지미, 권일남 (2021).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효과적 참여증진방안에 면담조사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1), 79-85. (Lee. J. M. & Kwon. I. N. (2021). A Interviews Study on the Youth Workers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Youth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7(1), 79-95).
9. 김희성 (2004).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Kim. H. S. (2004).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Empowerment through Youth Participation,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10. 윤동엽, 문성호 (2017). 청소년참여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01-123. (Yoon. D. Y. & Moon. S. H.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youth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mpowerm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7(1), 101-123)
11. 김윤나 (2012). 청소년정책참여활동의 특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참여기구, 참여활동인식(필요성, 중요성), 참여정도(활동기간, 활동몰입, 참여수준), 만족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0(2), 19-30. (Kim. Y. 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affecting policy activities factor to Youth leaders life competencies -focused on Demographic,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ctivities recognition (the need, importance), the degree of participation(activity durati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level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0(2), 19-30).
12. 박선희 (2020).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모의의회) 분석: 만족도 분석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2), 65-90. (Park. S. H. (2020). An analysis of the Gyeonggi-do assembly youth council learning program: Focusing on program satisfa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31(2), 65-90).
13. 황여정 (2021). 청소년참여경험이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719-748. (Hwang .Y. J. (2021).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Self-Expression Ability: Focused on Self-Governing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719-748).
14.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청소년 문화활동의 참여동기, 참여태도, 참여빈도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2), 77-95. (Kim. M. H., Lee. H. W. & Jung. Y. K. (2011).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Motivation, Attitude, Frequency of the Cultur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2), 77-95).
15. 김소정, 류정희 (2018). 청소년활동빈도, 주도적 참여도, 활동만족도 프로파일에 따른 적응유연성과 시민의식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697-712. (Kim. S. J. & Lyu. J. H. (2018).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Citizen Awareness by Youth Activities Frequency, participation, satisfaction Profil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7), 697-712).
16. 손수경 (2022). 청소년활동이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3(3), 77-102. (Son. S. K. (202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on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A multiple group analysi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ies on Korean

Youth, 33(3), 77-102).

17. 김영기, 정태성 (2022). 방과후 청소년교류활동 참여도와 청소년활동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지원정도의 매개효과, 방과후학교연구, 9(1), 143-159. (Kim. Y. K. & Jung. T. S. (2022). The Mediating Effects of Supporting Youth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ter-school Youth Exchange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The Journal of After-School Research, 9(1), 143-159).
18.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논문지, (Park.D.J., Kim.S.M. & Park. K. A. (2022). The Effects of Level of Achievement Expectation to Youth Activities on Satisfaction to Youth Activities: Moderating Effects of Level of Support to Youth Activities, Journal of Wellness, 17(2), 155-161.
19. 이지연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수혜와 지지제공의 심리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45-268. (Lee. J. Y. (2014). The Psychological Effect on Adolescent's Receipt and Provision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245-268).
20.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김평화 (2018). 2018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조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m. H. J. Moon, H. Y. Jung. J. H. & Kim. P. H. (2018). A study on youth activity survey V,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1.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22.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23.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Y: The Guilford Press.
24.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25.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Kim. Y. I. (2007). Youth Participation in the Korea Youth Assembly and Citizenship Chang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6), 99-127).